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6 월 24 일에 Sunday School VBS 가 있습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께 알려주시고 식사 및 진행과
관련해서 Volunteer 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부탁드립니다.
- 홍성훈 집사님 아버지님 홍동익 성도께서 지난 월요일
오전 9 시 10 분(한국 시간)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고인의 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덕을
기리며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빕니다.

2017 년 6 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서영수 집사/시편 8 편
 이번 주 친교: 하영미/홍영순 집사
 다음 주 친교: 서현숙/이미경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6월 4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8 장(통 9 장) 다함께
“거룩 거룩 거룩”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04:24-35 변명균 집사

찬양(Choir)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6:6-10 인도자

설교 (Sermon) “때가 이르매”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524 장(통 313 장) 다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5. 28. 주일 설교 요약

참된 영광 (갈 5:25-6:5)

한 사람의 존귀함과 영광은 누군가가 알아줄 때 빛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은 관계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과 지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영광을 구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5:25). 헛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격동하거나 헛된 열등감에 사로잡혀 남을 시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 은근히 즐기거나 그저 비판만 함으로 격동시킵니다. 그러나 “형제들,” “성령의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영광을 얻는 사람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긴 쉽지만 바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짐을 나눠 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빌 2:5)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스스로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하나님 뜻의 이룩을 이루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데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남을 섬기거나 도우려 할 때 스스로를 살피라고 권면합니다(1, 4 절).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일을 살피서 아무 것도 아닌데 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 대신에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살피고 시험하라는 것은 반성과 후회를 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 살피는 것이고, 연단을 거쳐 순전해 지기 위해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랑이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만 있는 것을 거듭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 치고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서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관계의 존재여서 존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월감이나 열등감, 비교에서 오는 시기와 교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의 원망과 분노가 여전히 우리 안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고 살피고 시험해야 합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영광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참된 영광을 아는 믿음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인정을 강요하는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교만을 버리고 용서로 얻은 의를 회복하며, 받은 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로 모든 원망의 가시가 씻겨집니다. 친절하신 음성을 들을 때 모든 어둠이 불러가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모든 상처가 씻겨질 것입니다. 참된 영광을 회복하여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 지기에 넉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공로와 자랑을 삼아 교만하지 않은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